

'전주공연예술페스타' 개최

전주문화재단, 12월 2일까지 한벽문화관서 다양한 공연 진행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11월 17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에서 2023 전주공연예술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전주공연예술페스타는 전주 공연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우수 공연 콘텐츠를 발굴해 시민들에게 공연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3 전주예술가지원사업 공연예술지원' 사업 창작 초연 부문에 선정된 페탈(PETAL)예술기획과, 우수 레퍼토리 부문에 선정된 소리극단 도체비, 고니아, 극단 삼육옥 등 다양한 작품을 한 공간에서 펼쳐 예정이다.

먼저 17일 오후 7시 30분에는 고니아의 '장단 위의 선율'이 관객을 만난다. 고니아는 드라마와 예술프로그램 등의 OST를 발표하며 대중성을 확보하고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음악활동을 이어 나가는 밴드이다. 이번 공연에서 고니아는 그간의 음악 여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와 더불어 전통 장단과 장구 등을 이용한 새로운 한국 재즈 공연을 선보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어 24일 오후 7시 30분에 페탈(PETAL)예술기획이 선보일 '길로(路) 있다'는 '길에서



2023 전주공연예술페스타 포스터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에 관해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아날로그 사운드, 무대 위 무용수의 생생한 움직임, 그리고 라이브 연주를 통한 현장감 등을 통해 관객에게 참신함을 선사하고, 무용수와

연주자가 현장에서 발산하는 에너지를 관객과 공유함으로써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2년도 공연예술지원사업의 창작 초연 부문 선정작이었던 소리극단 도체비의 '삼월·애(愛)'는 30일 오후 7시 30분에 공연이 펼쳐진다. 걸인들을 도우며 약자 편에 섰던 사회운동가이면서 전주 3·13 운동 당시 활약한 실존인물 이거두리와 민초들의 이야기가 창작주제로 재탄생했다. 만세운동이 펼쳐질 당시 전주 사람들의 모습이 무대 위에 재현된다.

끝으로 추운 겨울, 따뜻한 감동 이야기를 선사할 극단 삼육옥의 '말하는대로 운사장'은 장애인 형과 비장애인 동생의 가슴 찡한 이야기를 전한다. 이 연극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두 형제에게 일어나는 이야기를 따뜻하고 재미있게 풀어낸 코믹감동 휴먼드라마로, 12월 2일 오후 3시에 만나볼 수 있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이번 전주공연예술페스타가 관객들에게 전주의 수준 높은 공연예술의 진수를 만나는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완성도 높은 공연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올 한해 동안 땀과 열정을 아끼지 않았을 공연예술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재단 문예진흥팀(063-211-927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모두가 어우러지는 모어(MORE)영화제

전북여성가족재단, 제1회 전북 양성평등 영화제 17~18일 개최

제1회 전북 양성평등 영화제가 '모두가 어우러지는 모어(MORE)영화제'라는 타이틀로 17일 막이 오른다.

이에 전북여성가족재단 전북거점형양성평등센터(원장 전정희)는 17~18일 이틀 간 전주 메가박스 객사점 10관에서 7편의 영화를 전면 무료로 상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양성평등 영화제는 여성과 가족의 일상에서 '돌봄, 청년, 다양한 가족, 기후 위기' 등이 점점 중요한 이슈로 부각 되는 현실을 반영해 총 7편의 장·단편 영화를 선정했다.

먼저 17일 저녁 7시 개막작 '옥순로그'를 시작으로 18일에는 '트루나', '트루친친구', '△해피해피', '이혼파티', '△로봇이 아닙니다', '△안할 이유 없는 임신', '△개미와 배짱' 등이 상영된다.

또한 영화 상영과 감독과의 대화, 리운드 테이블 북 토크, 포럼 등 도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와 더불어, 폐막식에서는 넥스트젠코리아와 함께하는 '토크와 앤드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한편, 모어(MORE)영화제는 모두가 어우러지는 영화제라는 의미로, 성평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화를 상영한다.

전정희 원장은 "'모두가 어우러지는(MORE)영화제'는 함께 모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함께 모여 더 (MORE)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모어(MORE)영화제'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깊어가는 가을, 전북 도민 모두가 어우러지는 모어(MORE)영화제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http://www.jbwf.or.kr)이나 전화(063-254-9473)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군산 배경 극단사람세상 창작극 '그렇게 좋은 감' 공연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지원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1월에는 극단사람세상의 창작극 '그렇게 좋은 감'이 공연된다.

극단사람세상(대표 최균)은 1997년에 창단해 올해로 개관 27년차를 맞은 군산지역 대표 연극 단체로서 78회의 정기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창작극 '그렇게 좋은 감'은 군산시를 배경으로 한 오피버스극 구성의 연극이다. 제2장은 영원한 사랑을 꿈꿨지만 사랑만 가지고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젊은 커플의 이야기. 제3장은 먹고 살기 위해 죽어라 일해도 고단한 삶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중년 부부의 이야기.

제3장은 한때의 괴로움을 보내고 내일을 그리게는 지독하게 평범한 노년 남녀의 이야기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작품은 우리에게 친숙한 군산 시내 명소의 등장과 과일 '감'을 '사랑'으로 비유한 노련한 구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감각적인 연출과 에피소드를 이끌어 나가는 배우들의 연기력이다.

군산을 배경으로 한 창작극 '그렇게 좋은 감'은 17~26일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4시에 극단사람세상(군산시 신설로 5)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관람 문의는 전화 (063-468-2139, 010-7562-7502)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명화, 미디어아트로 피어나다'

정읍시립미술관 특별기획전시 오늘 개막

정읍시립미술관은 미술사에 기록되는 거장들의 명화를 실감미디어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 기획전시 '명화, 미디어아트로 피어나다' 전을 17일 개막한다.

이번 전시는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의 주로 인상파 작가들의 주요 작품을 실감 미디어 기법으로 생동감 넘치게 표현한 미디어아트 전시로, 빈센트 반 고흐, 클로드 모네, 에곤 실레, 구스타프 클림트, 귀스타브 카유보트, 에드바르트 무크 등의 거장의 대표작 20여 점을 선보인다.

우리에겐 친숙한 클로드 모네, 빈센트 반 고흐, 구스타프 클림트 등과 함께 한국인이 사랑하는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이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로 구분돼 화려하게 펼쳐진다. 1전시실은 봄과 여름을 주제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으로 시작해 클로드 모네의 작품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여름은 클로드 모네의 수련 연못 시리즈로 시작돼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으로 이어지며 밝은 색조를 통해 시원한 여름을 표현한다.



2전시실은 가을과 겨울로 에곤 실레, 빈센트 반 고흐 등 가을 낙엽과 까마귀 등이 늦가을의 황량함을 나타낸다. 겨울은 클로드 모네, 귀스타브 카유보트 등의 작품으로 마무리 된다.

3전시실은 인터랙티브 존으로 가을과 겨울을 보여주는 구스타프 클림트와 에드바르트 무크의 작품을 통해 관람객이 작품을 함께 만들어가는 전시로 구성돼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전시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오후 5시 30분 입장 마감)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관람료는 유료(정읍시민 2000원, 관외 5000원)이며 카드결제만 가능하다. /정은림기자

김동현 작가 첫 개인전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23일까지 전북예술회관 3층 산마루 전시실에서 김동현 작가의 첫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작가는 '눈물'을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작가에 따르면 동그랗게 생긴 '환상'에서 동심을 느끼고, 시간이 지날수록 '환상' 하나하나가 작은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작품에 담고자 했다. 목상감을 통해 나무 고유의 무늬 색감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채워 나가기도 하고 나무가 가진 단색을 질고 화려하게 표현하고자 했다.

김동현 작가는 "모두가 행복과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한벽문화관, 전시공간 지원사업 선정 2팀 전시

전주한벽문화관(관장 김철민)은 지역 시각에 예술 작가들의 창작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자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시공간 지원사업'을 마련, 공모를 통해 최종 2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팀은 구성원 작가 포함 총 10인의 작가로 구성된 단체전과, 조민지 작가의 개인전이다.

먼저 만나 볼 전시는 지난 10월 28일 오픈한 '전북의 미술가들' 전으로 오는 11월 21일까지 열린다. 전국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북 작가 10인의 면면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로, 총 22 작품을 전시한다.

이어 열리는 '표류하는 기억들'전은 조민지 작가의 개인전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이는 인간의 존재와 '시간성'이라는 키워드로 바라본 작가의 서사가 담긴 전시로, 일상의 익숙함 속에서 멀어지거나 자연히 잊힌 것들에 대한 존재를 일깨움으로써 관람자의 시선을 확장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해당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전시 관련 사항은 전주한벽문화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콘텐츠사업팀(063-280-70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 내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